

韓國 開化期 基督敎學校 敎科書의 書誌學的 研究

金 鳳 姬*

- | |
|---|
| I. 序言
II. 社會敎育의 背景
III. 基督敎學校 敎科書
IV. 結言 |
|---|

I. 序 言

韓國의 開化期는 1876년 門戶개방을 계기로 西歐 列強의 침투와 開化, 保守세력간의 대립가운데 近代化가 추진되던 시기였다. 그러나, 이 시기의 近代化는 開化와 더불어 敎育의 近代化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開化期의 敎育 近代化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改新敎 宣敎師들이 설립한 基督敎界 學校의 역할은 지대한 것이다.

韓國은 1876년 門戶를 개방하면서 서양의 새로운 文化와 文物을 받아 들이게 되었고, 1882년 한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 미국인이 한국에 입국한 것은 1833년 초대 미국공사 푸트(L.H.Foote, 福德)가 부임한 이후 부터이다.

1884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의료 선교사 알렌(H.G. Allen, 安連)이 입국하면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G.Underwood, 元杜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H.G.Appenzeller, 亞扁薛羅)는 1885년 4월에,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튼(W.B.Scranton, 施蘭敦) 의사와 그의 모친 매리 스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

** 이 연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연구기금 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크랜톤(Mary F. Scranton)부인은 그 해 5월에,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헤론(J. W. Heron, 惠論) 의사는 그 해 6월에 각각 서울에 들어 왔다.

서울에 들어온 아펜셀라는 培材學堂을, 스크랜톤의 모친이 梨花學堂을 열므로써 한국 최초의 기독교 교육기관이 시작 되었다.

이들 학교는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사랑'과 '봉사'로 한국에 '보다 나은 한국인' '기독교적 한국인'을 기르고 이를 教育시키고자 하였다.

本稿에서는 초기에 세워진 培材, 梨花, 敝新, 貞信을 대상으로 이들 학교에서 사용한 教科書를 밝혀내고 書誌적으로 考察해 봄으로써, 이 教科書를 통하여 그 당시 어떻게 教育의 近代化를 이룩하려고 하였는지 民主思想과 平等思想을 심어 주었는 지를 알아 보고자 한다.

II. 社會教育的 背景

韓國에 基督教學校가 設立되던 時期는 韓國이 마약 문호를 개방한 직후 소위 開化가 시작되고 있던 時期였다.

韓國의 開化期를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설이 있으나, 李光麟은 開化의 時期를 세단계로 구분 하고 있다.¹⁾

첫째, 1870년대

「開化」와 「開國」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던 時期

둘째, 1880년대

외국 기술을 받아들여 나라의 富強을 이룩해 보겠다는 時期

셋째, 1890년대와 1900년대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권리를 주장하던 時期

이렇게 볼때 開化初期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이 체결된 시기로 볼 수 있고, 이후 미국, 영국, 독일, 러시아등과 조약을 맺는 등 정식으로 외교가 성립된 시기이며, 開化期의 끝은 1910년 韓日合邦이 이루어지던 時期로 보는 것이 타당할것 같다.

1) 李光麟, 《韓國開化史研究》, 《社會》- 漢學, 1234) p. 31.

韓國에 改新教 宣教師가 들어와 學校를 세우기 훨씬 전 이미 基督教은 시작되고 있었다.

韓國의 基督教은 天主教로부터 시작되었고 中國을 통하여 韓國에 傳來되었다. 16세기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北京에 赴燕使로 왕래하던 우리나라 사신들의 손으로 西洋文物이 전해 들어 오면서 漢文으로 된 天主教의 西洋 書籍이 소개 되었다. 이 漢文으로 된 天主教 書籍의 대표적인 것이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利瑪竇)신부가 北京에서 出版한 「天主教義」이다. 이러한 書籍들을 통해 우리나라 학자들은 天主教에 대한 信仰心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바탕위에 1784년 北京에서 이승훈이 최초로 영세를 받고 귀국하게 되어 우리나라 천주교회의 시작을 이루게 되었다. 그후 1794년 中國으로 부터 최초로 주문모 신부가 입국하게 되고 이어서 프랑스의 신부들이 입국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정부관리들에 의해 발각되어 해산되고 이후 100여년간에 걸친 박해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때에 네 번에 걸친 박해가 있게 되는 데 1801년의 辛酉教難, 1839년 부터 1841년까지의 己亥教難, 1846년의 丙午教難, 1866년부터 1871년까지의 丙寅教難이 그것이다.²⁾

이러한 배경위에 1882년 미국과의 수호조약이후 改新教 宣教師들의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 宣教師가 西洋式 近代學校를 세우던 무렵 정부에서도 西洋의 新教育을 받아 들인다는 의미에서 세운 官立學校가 1886년에 시작된 「育英公院」이다.

이보다 앞서 西洋 여러나라와 수호조약을 맺게 되자 외국어를 아는 통역관이 필요하게 되어 정부는 독일인 뮐렌도르프(P.G. Von Moellendorff, 穆麟德)의 도움을 얻어 1883년 「同文學」이라는 英語學校를 세웠다. 이 「同文學」은 통역관의 양성 목적이었기 때문에 「通辨學校」라고도 불렀다.

이 學校는 金允植 一行이 北京에서 「同文館」을 시찰하고 돌아와 건의했기 때문에 이 中國의 「同文館」을 모방하여 統商衙門의 부속기관으로 두었으며 이 學校에서 教育받은 學生들은 후에 통역관으로 많은 활약을 하였다.

2) 拙著, {한국기독교문서 간행사연구(1882-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7), p. 17.

「同文學」은 오전, 오후 두반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紙, 筆, 墨등은 학생이 부담하고, 冊이나 서양종이 등은 衙門에서 지급하고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食費 등 일체가 지급되었다. 「同文學」출신들은 당시 韓國社會에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중 크게 활약한 사람은 南宮 櫟이다. 그러나 「育英公院」이 설립될 즈음 3년간 존속해 온 이 학교는 문을 닫게 되고 졸업생들은 「育英公院」에서 일하기도 하였다.³⁾

「育英公院」은 韓美修好通商條約 이후 미국에서 돌아온 閔泳翊을 비롯한 報聘使 一行의 요청과 駐韓美國公使館附武官 휘크(George C.Foulk, 福久) 소위의 주선으로 1886년에 세운 新式學校이다. 계획은 1884년부터 시작하였으나 甲申政變으로 중단되었다가 1886년 9월에 설치하게 되었다.⁴⁾

교사는 헐벗(Homer B.Hulbert, 訖法), 길모어(George W.Gilmore, 吉毛), 벙커(Delzell A.Bunker, 房巨)였다.

班을 둘로 나누어 左院은 年少한 文武官吏중에서, 右院은 15세에서 20세 사이의 高官의 子弟 혹은 高官이 추천한 젊은 선비중에서 4씩 당파를 안배하여 정하였다.

左院의 학생은 집에서 通學하게 하고 右院의 학생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모든 운영비는 戶曹와 宣惠廳에서 반반씩 공동 부담 하였고, 뒤에는 海關稅중에서 충당했고 교사의 월급 또한 海關稅로 지급하였다.⁵⁾

수업시간을 비롯하여 기숙사 생활은 기상 취침도 철저히 지켜야 하고, 陽曆과 陰曆을 참작하여 定한 방학 휴일 외에는 결석 할 수 없으며 교과내용은 「學習次第」라 하여 처음에는 책읽기와 글쓰기로 부터 출발하여 차츰 數學, 自然科學, 歷史, 政治學등을 배우며, 시험을 月末과 年末, 그리고 「大考」라 하여 3년 마다 치는 시험등 세 종류가 있어 「大考」에 及第하면 졸업시켜 직업을 갖도록 하였다.⁶⁾

3) 李光麟, 위의 책, pp. 107-108.

4) 李光麟, 위의 책, pp. 104-105.

5) 李光麟, 위의 책, p. 120.

6) 李光麟, 위의 책, pp. 120-121.

公院에서의 강의는 英語로 하였으며, 教科書도 英語로 된 것을 채용하였다. 처음 개교했을 때는 英語를 아는 이가 하나도 없어 알파벳으로부터 시작하였다.

교사들은 엄격한 규칙에 따라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자 하였으나 학생들은 무단 결석 혹은 병을 구실로 자주 결석하여 새로운 교육에 전혀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결석은 방관되었고, 심지어 그들의 요청에 따라 겨울에는 수업시간을 1일 6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시키고 左院의 학생들은 3일 마다 한번씩 公院에 나와 수업을 받도록 결정을 내리기까지 하였다.

西洋式 教育의 방법과 목적이 잘 이해되어 있지 아니한 전통과 보수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당시 사회에서 갑자기 성과를 거두기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되자 열성을 가졌던 교사들이 사임하게 되어 1894년 폐지하게 된다. 「育英公院」에서 교육받은 학생들로 李完用, 閔泳敦, 趙重穆등이 있다.⁷⁾

결국 양반 고관의 자제들만 입학시켰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을 받아들이기에는 힘들었던 것이다.

여기에 반하여 平民으로부터 시작한 基督教界 學校는 그 당시 韓國을 이끄는 새 역군을 배출했다고 할 수 있다.

II. 基督教學校 教科書

1. 教育課程

1) 培材學堂

1885년 내한한 아펜셀러는 8월3일 李謙羅, 高永弼의 두 학생을 데리고 수업을 시작하였다.⁸⁾

두명으로 시작한 培材學堂은 초창기의 2년은 주로 英語를 가르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당시 아펜셀러가 언어소통이 잘 되지 못하였고 수업은 아펜셀러의 집에서 시작하였다.

7) 李光麟, 위의 책, p. 131.

8) 培材百年史(1885-1985), 學校法人培材學堂, 1985, pp. 32-33.

"우리는 우리학교에서 통역관이나 기술자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과 교양인을 만드는데 그 목적을 두고있다"⁹⁾ 고 아펜셀러는 말하고 있다.

培材의 學堂訓은 "欲爲大者, 當爲人役"으로, "너희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자가 되고 너희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중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 20:21-28)의 성경 말씀을 漢文으로 풀이하고 있다. 培材의 學制는 普通科, 本科, 大學部의 세 과로 나누고 있다.

普通科는 漢文, 英語, 萬國歷史를 주로 가르쳤고, 수업년한은 4년이였다. 本科는 英語, 漢文, 地誌등 여러 科로 나누고, 大學部는 本科를 마친후 進學하는 것으로 실력에 따라 3년 혹은 5년에 마치기로 한것으로 볼수 있다.

普通科, 本科, 大學部의 수업년한은 일정하지 않고 학생에 따라 융통성이 있었고, 입학자격은 漢文을 수학하고 한글을 이해하는 자로써 17세 이상의 남자로 하였다.¹⁰⁾

학과목은 1887년 校舎가 생기기 전까지는 주로 英語, 한글, 漢文이었고, 聖書는 아직 공식적으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었다.¹¹⁾

이후 聖經, 英語讀本, 漢文, 英語文法, 數學, 地誌, 萬國歷史, 幾何, 化學, 士民必知, 物理, 昌歌, 圖書, 體操, 衛生, 生理등을 교수하였고, 體操시간에는 野球, 庭球, 蹴球 등의 운동과 敎鍊을 주로 하여 모두가 선구적 역할의 일면을 보여 주었다. 또한 매 토요일 오후에는 과의 시간으로 演說會, 討論會, 국제법강의, 사상 발표, 辨論, 정치훈련, 문화연구를 할 기회를 갖게 하였다.

1889년도 培材學堂의 敎師와 科目 등은 다음과 같다.¹²⁾

9) 위의 책, p. 36.

10) 金慈晶, "基督敎學校의 敎育過程에 關한 研究," 誠信女子師範大學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75, p. 24.

11) 培材百年史, p. 46.

12) 위의 책, p. 53.

영문학 : 교장 헨리 G. 아펜셀러 석사
 역사 : 프랭클린 울링거 석사
 수학 : 죠오지 허재 존스
 의학과 : 윌리엄 B. 스크랜톤 의학박사
 과학 : 리차드 하크나스 학사
 음악 : 베르타 S. 울링거 부인
 미술 : 엘라디 아펜셀러 부인
 한문 : 송보산, 유치겸
 도서관사서 : 강재형

1893년에는 학제를 신학부(Theological Department)와 학술부(Academic Department)로 나누었다. 신학부는 아펜셀러, 학술부는 노블(W.A.Noble, 魯普乙)이 그 책임을 맡았다.

1894년 학술부의 공통과목은 古代史, 物理, 化學, 政治經濟學, 昌歌, 성경등 이었다. 1895년부터는 英語科와 國漢文科로 나누었고, 英語科에는 주로 英語를 배우려는 학생들이 입학하였고, 國漢文科에는 한글및 漢文과 漢文古典을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입학하였다. 이들 두 학과의 공통과목은 歷史, 地理, 算數, 物理등이었다.¹³⁾ 또한 學堂건물 지하에 三文出版社를 차려놓고, 학생들에게 기술과 학비보조를 위하여 일을 하게끔 하였다.¹⁴⁾

1896년에 들어서면서 교수진이 강화되어 徐載弼이 독립신문 창간 준비를 하는 동안 세계지리와 역사, 정치경제, 교회사등을 강의 하였고, 유치호가 1897년부터 1898년까지 과학개론과 천문학을 강의하였다.¹⁵⁾

교과서는 교사들이 주로 영어로 된 교과서를 번역하여 사용 하였으나 1896년부터 벵커가 「배재교육총서」(The Paichai Educational Series)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13) 위의 책, pp. 64-65.

14) 拙著, {한국기독교문서간행사 연구}, 梨大出版部, 1987, pp. 67-69.

15) 培材百年史, p. 68.

1908년에는 培材4년간의 교과목을 편성하였다.¹⁶⁾

학년시간 과목수	시 간	제1학년	시 간	제2학년	시 간	제3학년	시 간	제4학년
성 경	3	인 물	2	복음요사	3	성서개론	3	성서개론
국어(독본)	4	독법.작문	4	독법.작문	3	독법.작문	3	독법.작문
한 문	5	독법.습자	4	독법.습자	4	독법.습자 작 문	4	독법.습자 작 문
역 사	2	한국역사	2	동양역사	2	세계역사	2	한국역사
지 리	2	한국지리	2	한국지리	2	동양지리	2	세계지리
수학(대수)	2	수 학	2	대 수	3	대 수	3	대 수
영 어	5	독법.습자	5	독법.습자	6	독법.작문 습 자	6	독법.작문 습 작
일어(日語)	2	독법.습자	2	독법.습자	3	독법.회화	3	독법.회화
물 리		미상(未詳)	2	미 상	2	미 상	2	미 상
화 학		--		--	2	미 상	2	미 상
생 물	2	식 물	2	식 물	2	동 물	2	동 물
음 악	1	단음찬가	1	복음찬가	1	복음찬가	1	복음찬가
미 술	1	사생화	1	용기화		--		악 리
교련(체조)	1	체 조	1	교 련	1	교 련	1	--
계	30		30		34		34	교 련

교사진

학당장 병커(D.A. Bunker) 성경. 음악
교 사 노블(W.A. Noble) 물리. 화학
헐벗(H.B. Hulbert) 지리. 역사
루프스(W.C. Rufus) 수학
레퍼트(R.R. Reppert)

16) 위의 책, p. 159.

李重華	역사 국사
玄 循	영어
崔炳憲	한문
우중현	체조
빙커부인	식물 동물 도화
레퍼트부인	

1909년에 들어와서는 培材學堂의 學制가 변화 되었다. 구한국 정부의 高等學校 令에 의하여 1909년 8월2일 이름을 培材高等學堂으로 고치고 새로 인가를 받았다.

2) 梨花學堂

1886년 5월31일 스크랜튼부인에게 英語를 배우고자 찾아온 김부인이라는 학생으로 梨花學堂이 시작 되었다. 그래서 최초의 교과과정은 영어가 되었고, 교과과정 뿐 아니라 교수어도 되었다. 조별단이라는 두번째의 학생이 입학하면서 1893년까지는 聖經이 교과과정의 전부였다. 이 당시 聖經은 宗教的 書籍이었을 뿐 아니라 한글과 漢文을 배우는 入門書이기도 했다. 1889년 이경숙이 교사로 들어오면서 언문과정이 생기게 되었다. 같은 해에 生理시간이 생겼고, 1892년에는 反切, 漢文, 英語, 數學, 歷史, 地理, 科學등이 정식 교과과목으로 첨가되었다. 1891년부터는 미쓰 벤젤(M.Bengel)이 성악, 율전을 가르쳤고, 1897년에 미쓰 피어스(N.Pierce)가 합창을 가르쳤으며, 1909년에 음악이 정식 교과과목으로 채택되었다.¹⁷⁾

· 1893년 페인(J.O. Paine)이 學堂長에 취임한 후 體操과목이 교과과정에 첨가되었고, 1896년에는 재봉과 자수를 겸한 家事과목이 생겼으며, 1909년에는 洋裁科를 신설하여 매주 토요일 오전에 강좌가 있었으며, 그 시간에 만든 작품은 팔기도 하였고, 이 시간은 학생들로 하여금 기술을 익히게 하기 위함과 아르바이트를 하게끔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¹⁸⁾

이와같이 초기에는 처음부터 교과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목을 담당할수 있는 교사가 생길때 새로운 과목이 첨가 되곤 하였다. 교과서의 형편 또한 마찬가지로

17) 梨花九十年史編纂委員會, 《梨花九十年史(1886-1975)》, 이화여자고등학교, 1975, p. 53.

18) 위의 책, p. 54.

지였다. 당시 교과서는 인쇄, 종이, 적당한 저자등의 부족 때문에 어려웠고, 학생 수가 늘어감에 따라 學堂에 재직하고 있던 교사들이 번역하던지 공동으로 편찬함으로써 충당하곤 하였다.

당시 교과서를 보면, 1898년에 출간된 인체생리학(Miss Frey, Miss Paine), 초등인문교과서(Mrs. Johns), 1903년 번역 출간된 성서총론(Mrs. Johns), 聖經地誌問答(Dr. Follwell), 산술신편(Dr. Field), 천명의 위인전(Mr. Gale), 전체공용문답, 정치지리학, 예수의 생애등이 있고, 1908년에는 학무국에서 漢文書籍, 歷史書籍을 지급 받기도 했다. 1909년에 사용한 여자수신교과서를 보면 저술자 盧炳喜 校閱, 梨花學堂長 프라이(Miss. Frey, 富羅伊), 進明女學校 學監 여메레황(余袂禮 黃), 養源여학교장 尹高羅로 되어 있다.

1908년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¹⁹⁾

초등과: 국문, 한문, 作文, 算術, 도화, 地誌, 초보체조, 영어

중등과: 聖經, 漢文, 修身, 地誌, 本國歷史, 算術, 英語, 生理, 衛生, 動物學, 植物學, 도화, 理科, 부기, 代數, 초보체조

고등과: 聖經, 漢文, 代數, 幾何, 삼각, 天文學, 地文學, 心理學, 教育學, 物理, 化學, 英文學, 萬國地誌, 高等生理, 經濟, 歷史(萬國, 近世, 上古, 英國, 美國)

선과 및 수의과: 음악, 針線, 試取

입학전형: 10세이상

입학시취과목: 국문, 독서해설, 寫字

스크랜튼 부인 한사람으로 시작한 교사는 이듬해 부터 미쓰 로드 와일러가 가르쳤고, 1889년부터 최초의 한국인 여선생 이경숙이 언문쓰기, 읽기, 漢文, 글씨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1890년 부터는 시간강사를 채용하기도 했고, 1892년에는 漢文을 담당할 남자 선생이 들어 왔다. 1900년에는 강사를 포함해서 서양선생이 6명, 한국선생이 4명으로 되었다. 1904년에는 중등과가 생기면서 교과과정과 시간수가

19) 위의 책, pp. 54-55. 이화학당 학생모집 광고기사.

늘어나고, 학생수도 증가함에 따라 교사진이 대폭 증원되었는데 교사진은 다음과 같다.²⁰⁾

- 미세스 밀러(Hugh Miller): 성악
- 미쓰 호가아드(Hoggard): 체육, 미술
- 미세스 로우튼(Louton): -양재
- 닥터 모리슨(Morrison): -신학
- 미세스 브랜드(Mrs. Brand): -기악
- 미쓰 핀다르(Miss. Pindar): -종교
- 미쓰 페리(Perry): 종교
- 미세스 벙커(Bunker): 체육
- 미세스 레퍼트(Reppert): 산수
- 미세스 버어시(Versy): 합창
- 미쓰 류이스(E.Leais): 레스뜨기
- 미쓰 하워드(M.Howard): 생리
- 미쓰 해리스(M.Harris): 영어
- 신면휴 (申冕休): 한문
- 송구연: 한문
- 이경선(李敬善): 한문

이외에도 學堂長이었던 스크랜톤, 로드 와일러, 페인, 프라이등이 英語나 聖經을 가르쳤다. 당시 서양인 교사들은 대개가 선교사 부인이나 딸들이었고, 河蘭史, 李星會같은 한국인 교사도 있었다.

1904년 中等科가 생기기 전까지는 초기에는 學年이나 學期別 수업년한, 취학년령등이 일정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처음에는 학교에서 학생을 찾아 다녀야 했고, 후에 학생이 학비를 부담하여야 했을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때 부터 입학기는 가을학기로 정해졌다. 초창기 수업년한이나 취학연령이 정해지지 않

20) 위의 책, p. 56.

있을 때에는 8,9세때에 학당에 들어와 한 10년 공부하다가 우수한 학생은 학당에서 외국유학을 보내기도 하였고, 그밖에는 출가시키는 것이 관례여서 졸업식이 따로 없었고 결혼하는 날이 졸업식이 되었다.²¹⁾

그러나, 1908년부터는 언문을 깨치지 못한 학생은 받지 않음으로써 초등교육과정에서 중등교육 과정으로 전환한 셈이다.

중등과 4년제의 교과목과정 및 매주 시수는 다음과 같다.²²⁾

종별 과목	1		2		3		4	
	과 정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시수	과 정	시수
국 어	한글로 된 복 음 서	5	훈 아 진 언	5	내훈(內訓)	5	미 상	5
한 문	대 학	5	논 어	5	논 어	5	논 어	5
산 술	정수.분수	4	소수.주산	4	비례.보합산	4	대 수	5
역 사	이 조 사	1	고구려.신라	1	고 려	1	미 국 사	1
지 리	한국지리	1	지구약론	1	외국지리	2	미국지리	2
성 경	마가복음	1	요한복음	1	복음요사	1	성서총론	1
영 어	미 상	5	미 상	5	미 상	5	미 상	5
이 과			동물.식물	1	물 리	2	화 학	3
도 화	임화.사생화	1	임화.사생화	1	참 고 서	1		
생 리	생리위생	1	가정위생	1	육 아 법	2	육 아 법	2
음 악	단음창가	1	기악(풍금)	1	곡부개론	1	곡부개론	1
작문습작	습자.작문	2	작 문	1	기 악		기 악	
재 봉	운 침 법	1	재법.자수	1	작 문	1	작 문	1
체 조	유희 . 학교체조	1	유희 . 학교체조	1	자수.재봉기 사 용 법	1	양 재 법	1
계		29		30		32		32

21) 위의 책, p. 57.

22) 위의 책, p. 59.

1886년 학생 1명으로 시작한 이래 1907년까지 약 100명의 학생을 교육하고 배출하였으나 그때까지 학당자체의 졸업식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졸업식을 갖지 못하다가 1904년 4년제 중학과 설치에 따라 1908년 비로서 중등과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하기에 이르렀으며 5명에 불과 했으나 정규과정을 밟은 국내 최초의 여학교 출신이었다.

3) 敝新學校

敝新學校의 최초의 이름은 언더우드학당이였다. 언더우드학당은 1886년 언더우드목사가 貞洞에 敝新學校의 모체인 우리나라 최초의 고아원이였다. 이 학당은 학생들의 교육비 일체를 선교부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학과는 영어와 국어등 일반학과의외에 성경, 찬미, 기도를 가르쳤다. 학생들은 처음 10명에서 차츰 25명으로 증가하였다.

창설당시의 선생 및 학생명단은 다음과 같다.²³⁾

선생	언더우드(H.G. Underwood, 元杜尤)
	알렌 (Allen, 安連), 알렌부인
	목원홍(睦源弘), 윤치경(尹致景)
	정태용(鄭泰容), 정동명(鄭東鳴)
학생	송순명(宋淳明), 안창석(安昌錫)
	김유순(金裕淳), 김규식(金奎植)

일과시간표²⁴⁾

시간	일과	시간	일과
5:00	기상 및 세면	6:00-7:00	한문공부
7:30-8:00	아침식사	8:00-9:00	아침예배
9:00-13:00	한문공부	13:00-14:00	점심식사
14:00-15:00	성경공부	15:00-17:00	오락 및 목욕
17:00-18:00	한문공부	18:00-19:00	저녁식사

23) 고춘섭, {敝新八十年略史}, 경신중고등학교, 1966, p. 30.

24) 위의 책, p. 33.

「아침예배」는 게일목사가 인도했으며, 「성경공부」는 기포드목사에 의해 한문으로 된 성경, 십계명과 詩句로 된 「예수의 생애」 등을 가르쳤다. 한문공부는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1권, 8권을 주로 하여 한문을 중시 했다는 것을 알수 있다.

1891년에 고아원을 개편하여 학교로서의 체재와 기구를 갖추고 「예수교학당」이라 불렀다.

이때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다.²⁵⁾

교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I	오전8.00-8.30	체 조	체 조	체 조	체 조	체 조
II	" 8.30-	작 문	산 술	받아쓰기	번 역	지 리
	" 10.30-	문 법	독 서	역 사	철자법	필 기
III	" 9.00-	독 서	산 술	작 문	철자법	필 기
IV	오후1.00-	독 서	산 술	철자법	필 기	--
V	" 9.30-	철자법	--	산 술	--	--
VI	" 9.30-	--	산 술	--	철자법	독 서

1893년에 밀러(F.S. Miller, 閔老雅)가 당장직에 취임후 한국식 자기이름으로 따서 「민로아학당」으로 바꾸고 보통반, 특별반을 두어 폭을 더 넓히고 직업교육을 위해 관리학을 비롯해 木材의 製材와 바구니 제작등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이후 교육에 대한 요구가 컸고 1896년에 선교부는 교육계획을 확대시켰고, 베어드목사(William M. Baird)를 민로아 학당장 서리로 임명하였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1897년 미 북장로교 선교부는 전도사업이 시급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현지 기독교인의 요구가 적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운영, 교육사업에 필요한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민로아학당을 폐당키로 하였다.²⁶⁾

25) 위의 책, p. 34.

26) 위의 책, p. 39.

민로아학당이 폐당된지 4년만인 1901년 1월에 개일목사는 미 북장로교 선교회의 중단된 교육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연못골(지금의 蓮池洞)에서 「예수교중학교」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였다.

그 당시 교과목과 담당선생은 다음과 같다.²⁷⁾

성경	金正三,	교회사	개일
국어	金正三,	한문	鄭泰容, 鄭彬, 金道熙
영어	디캠프(De Camp)		
산술	鄭海永,	대수	밀러 (E.H.Miller)
화학	어비슨(O.K.Avison)		
물리	언더우드		
천문학	개일		
박물			
지리			
조선사			

교과서는 대개 선생이 1권 갖고 있어서 불편 하였으나 1906년부터는 선생들이 책을 번역 출간 하기도 하였다.

「敝新」이라는 이름은 1905년에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4) 貞信女學校

1886년 한국에 온 애니 엘러스(Annie Ellers)양이 1887년 여름 1명의 고아로 시작한 貞洞女學堂, 즉 오늘날 貞信女中高의 前身이다. 그 후 홀튼(Lillias S. Horton)양, 엘렌(Ellen Strong)양, 아비컬(V.C. Arbuckle)양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女兒들의 수도 늘게 되었다. 1888년 부터 1890년 사이의 貞洞女學堂의 학생수는 7명으로 불었고, 책임자는 헤이든(Mary Hayden)과 2명의 한국인 보모가 있었다.

초기의 학과목은 聖經과 算術 두과목이었고, 교과서는 선생만 가지고 있었고 그

27) 위의 책, p. 65.

것도 엘리스양이 미국 어린이들의 교과서를 한국말로 번역하여 펜으로 써 놓은 것이었다.

1890년대의 학과목은 성경, 한문, 게일과 이창직의 저술 「旃蒙千字」를 배웠다.²⁸⁾ 歷史와 地理, 算術, 美術, 習字, 體操, 音樂, 家事, 針工, 전체고용문답(생물시간에 모든 인체의 구조를 문답식으로 배운 위생학), 당시에 과학, 생물, 물리 등은 濟衆院에 가서 의학생과 같이 배웠고, 西洋史, 天文은 게일에게 배웠다.²⁹⁾

그당시 학교의 교과서를 제정 발행하지 않은 때여서 교사들이 미국 학교의 교과서를 번역하여 만든 것이 주로 교사용만있었다.

수업년한 초기에는 제한이 없었고, 학년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진도가 늦으면 늦는대로 하나 하나 가르쳤고, 성인이 되도록 길러 주었다.³⁰⁾

1895년 10월, 위치를 貞洞에서 蓮池洞으로 옮기고, 1903년부터는 중학교제가 설정 되었고, 학생수는 13명, 1909년 「蓮洞女中學校」가 「貞信女學校」로 개칭 되었고, 학생수도 점점 증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8) 拙稿, "게일(James Scarth Gale, 奇一)의 韓國學著述活動에 關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3輯, 1988, p. 143.

29) 김영삼, {貞信七十五年史}, 정신여자중고등학교, 1962, pp. 83-86.

30) 위의 책, pp. 68-69.

2. 教科書

각 학교의 교과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英語, 聖經, 歷史 등이 공통과목이라 할 수 있고, 실제로 實果 과목에서 남녀 학교의 구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각 教科書를 書誌的으로 살펴보니 있어서는 학교의 구별을 할 수가 없어 그 당시 각 학교에서 사용했으리라 생각되는 것을 하나 하나 과목별로 나누어 해제하고자 한다.

〈生理.衛生〉

初等 生理衛生學大要 全

安種和 述. 京城:廣德書館, 隆熙 三年(1909) 九月 三十日 二十五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5×1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卍字紋이며 4침안이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고 卷首는 表題面, 純漢文序 2頁와 目次 6頁이고, 本文은 60頁, 卷末은 版權面과 廣德書館의 書籍광고로 이루어져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을 받은 私立學校初等敎育 學員用 圖書이다. 총 52課로 이루어져 있으며 總論으로 부터 시작하여 人體, 運動器, 消化器, 循環器, 排泄器, 神經器, 五官器에 대하여 설명하고 人體에 필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飲食, 空氣, 日光, 運動, 休息, 公衆偉生 등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삽도는 총 16圖이고 p.16의 四圖 呼吸器는 습자지에 칼라인쇄로 되어있다.

참고로 總論의 全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人體의 屬한 理科를 普通으로 三種에 區別하니 人體生活의 原理를 研究하는 者는 生理學이오 人體 各部의 位置와 形狀의 措造(構造는 做成)를 研究하는 者는 解剖學이오(身體臟腑를 割開하여 細究함이라) 人體健康의 規則(規則은 定한 法)를 研究하는 者는 衛生學이니라.

雖然이나 生理學과 解剖學은 關係가 互有하여 複雜을 免하기 難함으로 解剖學

은 生理學에 合編하고 衛生學은 人體에 健康을 保安增進함으로 個人衛生과 公衆衛生이 皆國家幸福을 安享코자 함이니 故로 此書를 初等生理衛生學이라 稱하
니라.(1課 總論 pp.1-2)

〈物理〉

初等 簡明物理教科書 用

崔在學 譯, 朴晶東 校閱, 京城:唯一書館, 隆熙 四年(1910) 一月 二十日, 三十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卍字
紋이며 4침안이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고 卷首는 標題面, 隆熙 元年(1907) 八月
張志淵이 쓴 純漢文序 4頁, 編輯의 主義 1頁와 目錄 6頁로 이루어져있다. 本文은
68頁이고 卷末은 版權頁이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三年 十一月 二日)을 받은 私立學校 物理科 初等教育學
徒用 圖書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총 9章 74果로 이루어져 있으며 다음과 같
다.

- 第 1章 緒論
- 第 2章 固體
- 第 3章 液體
- 第 4章 氣體
- 第 5章 聲學
- 第 6章 光學
- 第 7章 熱學
- 第 8章 電氣磁石
- 第 9章 結語

本書의 編輯은 高等小學의 物理學을 階梯한 것으로 工藝場에 관한 것을 취하여
工學研究에 유익한 자료로 쓰기 위함이었다. 또 평상시에 보는 것을 택하여 아동으

로 하여금 알기쉽게 볼 수 있도록 하였고 小學教師의 자습에 편리한 것만을 취하였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도가 첨부되어 있는데 총 14圖이다.

참고로 八章 四課의 全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電氣를 生起하는 法

電氣를 生起케 하는 法이 數種이 有하니 一은 第十二圖와 如히 起電機를 廻轉함이오 二는 第十三圖와 如히 電池를 用함이라. 若, 強大한 電氣를 得는 法은 機械를 用하느니라. (pp.61-62)

<修身>

初等修身

朴晶東 著, 京城:同文社, 隆熙 三年(1909)七月 十二日, 貳拾伍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本으로 크기는 22.5×15.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卍字紋이며 4침안이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고 卷首는 表題面과 目錄 8頁이고 本文은 65頁, 卷末은 版權面이 있다.

本書는 隆熙 三年 四月 十五日자로 私立學校修身科 初等教育學徒用으로 學部檢定을 받은 교과서이다. 총 5章 65課로 된 本書는

- 第 1章 身體
- 第 2章 倫理
- 第 3章 雜著
- 第 4章 嘉言
- 第 5章 善行

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아 몸가짐과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倫理面을 강조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삽도는 총 28圖이며 다음과 같은 삽도가 수록되어 있다.

臂圖 手圖 毛髮 齒牙 行步 運動 居處 飲食 衣服 沐浴

父母 兄弟 姊妹 祖孫 朋友 家庭教育 敬師 學問 職業 時間
 踐教 學校 清廉 況靜 格物 踐約 公直 施惠

初等修身教科書 全

安種和 譯, 元泳義 校, 京城:廣學書舖 隆熙 四年(1910)六月 二十日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卷首는 表題面, 純漢文 自敍 2頁과 目次 4頁이고 本文은 39頁로 이루어져 있다.

本書는 隆熙 四年 三月 二十六日字로 私立學校初等教育修身科學徒用으로 學部檢定을 받은 교과서이다. 총 6章 10節로 된 本書는

- 第 1章 修己
- 第 2章 家族
- 第 3章 師友
- 第 4章 他人
- 第 5章 社會
- 第 6章 國民

로 서술되어 있다. 本書와 같은 私立學校 教科書로서 「初等修身」과 비교해 보면 本書는 1章 修己, 2章 家族을 강조하고 있고 면수도 初等修身的 절반정도 밖에 안된다. 또 삽도가 전혀 수록되어 있지 않다.

女子修身教科書 全

盧炳喜 著, 富羅伊, 余袂禮, 尹高羅 校, 京城:博文書館, 隆熙 三年(1909)二月, 二十五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卍字紋이며 4침안이다. 文體는 國文이면서 漢字는 併記하였으며 頁까지 國文으로 표기하였다. 校閱者가 많아 문체가 부드럽고 언문일치의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卷首는 目錄 3頁이고, 本文은 78頁, 卷末은 版權面이 있다.

本書는 隆熙 3年 5月-12月 1日에 걸쳐 使用禁止 처분을 받았으나 梨花學堂長 富羅伊(Miss Fry)이 校閱한 것으로 보아 그 이전에는 梨花學堂의 교과서로서 사용했을 것이다.

本書는 총 53課(대 오십삼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여성의 몸가짐을 설명하면서 은연중 국가의安危에 대한 자각심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로 대 오십이과 나라의 全文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사람은, 집에 매이고, 집은, 나라에 매었으니, 그런고로, 나라가 업은 즉, 집이, 업고, 집이 업으면, 몸이 의지할 바가, 업느니라, 猶太國(유태국) 사람이, 장수를 잘 하며, 사람이 부하되, 그, 나라가, 亡(망)호고로, 俄羅斯國(아라사국)에 간 즉, 아라사 사람이, 죽이며, 法國(법국)에 간 즉, 法國(법국)사람이, 辱(욕)하여, 넓고넓은, 天地(던디)에, 돌아갈, 곳이, 업으니, 甚(심)하도다. 나라 亡(망)호, 百姓(백성)의 身勢(신세)여, 波蘭國(파란국)과, 印度國(인도국)은, 나라가 亡(망)하매, 憶千萬百姓(억천만백성)이, 종이, 되어 平生(평생)에, 樂(락)을, 누리는자, 업도다. 그런고로, 몸을, 사랑호는 자는, 그, 집을 사랑호고, 집을 사랑호는 자는, 그, 나라를, 반듯이 사랑호지니라, 나라를 사랑호는 다 홍은, 사람마다, 각기, 그, 當(당)호, 職分(직분)을 힘써호면, 그, 나라는, 自然富強(자연부강)호, 나라가 되느니라.

<漢文>

初等女學讀本

李源兢 著, 邊瑩中 校, 隆熙 二年(1908) 三月 十日, 參拾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5×15.5cm이다. 洋紙漢裝本으로 表紙는 파손되었다. 4주쌍란이며 상혹어미로 되어있고 무제이다. 卷首는 表題面이 낙장되

있고, 序言 2頁, 目次 3頁이며 本文은 30頁이고 卷末은 版權面이 있다.

本書는 初等女學 第一年 第一學期 讀本으로 사용하기 위한 한문교과서이다. 序言에 의하면 古人의 言行만을 보존함이 아니고 여학교의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女誡, 內訓과 家訓에 여자가 일상사용하는 도를 採取하여 編한 것이다.

目次는 다음과 같이

明倫章

立教章

女行章

專心章

事父母章

事夫章

事舅姑章

和叔妹章

8章 51課로 이루어져 있다. 체제는 매課마다 懸吐와 國文풀이로 되어있다. 國文풀이는 띄어쓰기를 하는 대신 句讀點으로 대신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敬待媿叔^하야 母失禮貌^하며 友愛媿妹^하야 情若同己^하라 惟謙與順이 得其歡心이니 叔妹既和면 人無間言^하야 姑婦之間에 其樂融融^하리니 事姑事夫者^는 善事叔妹^진디.

시동심을, 경티^하야, 레모를, 일치, 말고,, 시누의를, 우이^하야, 정이, 동괴, 갓홀지라, 겸손, ^하고, 공순한 것이, 그 질거운, 마음, 엇느니, 시동심과, 시누의를, 임의, 화^하면, 스람의, 간언이, 업서, 고부, 스이에, 그, 질거움이, 룡툭^하리니, 구고와, 남편을, 섬기는, 자는, 몬져, 시동심과, 시누의를, 잘, 섬길진디.(第 五十一課, 三十頁)

普通教育 漢文新讀本 一, 二, 三, 四

李琮夏 著, 京城:廣德書館, 隆熙, 四年(1910) 二月 二十二日, 卷一 十錢, 卷二十三錢, 卷三 十三錢, 卷四 十四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5×15.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各卷의 卷首는 表題面이 있고, 卷末은 版權面이 있다. 本文은 卷一이 38頁, 卷二가 38頁, 卷三이 40頁, 卷四가 44頁이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三年 十二月 二十四日)을 받은 私立學校 漢文科 初等敎育 學徒用으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本書의 課目數를 보면 다음과 같다.

卷一 一百二課

卷二 六十六課

卷三 四十一課

卷四 四十課

卷一의 五十九課까지는 다음과 같은 例를 쓰고 있다.

○ 天地日月, 山川河海. (1課)

午食草, 鷄拘卵. 大吠客, 馬負人. (五十九課)

○ 六十一—八十六課까지는 以, 極甚, 能, 我汝彼, 之, 敎, 高疾遠, 不, 由自以積, 而遲速, 故, 則, 有於, 行, 聽, 干, 更最, 有, 其, 惡愛, 勿, 之爲, 以之의 文例로 설명하고 있다.

卷二—四是 文章을 중심으로 例를 들고 있고 卷二, 三是 書眉에 名臣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고 있다. 그 例를 하나 들면 다음과 같다.

卷二 第五十二課 尹文度에 관한 내용

字清鄉號清香堂 太宗朝兵曹判書 (二十六頁)

漢文初學 卷一

黃漢東 著, 京城:廣文堂, 隆熙, 四年(1910)二月 二十五日, 拾四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cm이고 洋紙洋裝本이다. 文體는 漢文이다. 卷首는 表題面, 本文은 40頁, 卷末은 版權面으로 이루어져 있다.

本書는 隆熙 三年 十月 十三日字 學部檢定(內部認可)을 받은 私立學校 初等科 一學年 學徒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총 47課로 이루어져 있고 14課까지는 기본글자를 들고 있고 15課부터는 문장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15課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朝日, 出. 夜月, 明.

桃花, 開. 溪水, 流.

南風, 暖. 北風, 寒. (pp.9-10)

〈博物學〉

最新 博物學教科書 全

李觀熙 著, 京城:中央書館, 隆熙 四年(1910) 八月 二十五日, 四十五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장정이 洋裝本이나 表紙는 卍字紋이 있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다. 卷首는 表題面, 凡例 1頁와 目次 4頁로 이루어져 있고, 本文은 114頁 卷末은 版權面이 있다.

本書는 隆熙 四年 二月 十五日字 私立學校 初等教育 博物科 教科書로서 學部檢定을 받은 圖書이다.

凡例에 의하면 本書는 動. 植. 礦物로 배정하고 또 各物은 저자의 知覺과 實驗을 한 것, 저자 生活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을 택하였다고 한다. 本書는 學部令에

의하여 매주 2시간 3학기에 배정하여 80시간에 끝낼 수 있는 분량을 수록하였다. 動. 植. 鑛物로 단원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총 47課로 되어 있다. 제제는 緒論, 本論, 結論으로 되어 있다. 本文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심내용은 書眉에 기재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삽도는 총 56圖를 수록하고 있다.

中等鑛物界教科書 全

閱大植 譯, 徽文義塾編輯部 校閱, 北署徽文館, 隆熙 元年(1907) 八月 三十一日, 二十錢.

本書는 梨花女大와 延世大에 소장되어있으며 크기는 22×14.5cm이고 洋紙洋裝本이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다. 卷首는 表題面과 目錄 6頁이고, 本文은 58頁이다. 卷末은 版權面과 徽文館 出版의 圖書 廣告가 실려 있다.

本書는 隆熙 元年 十二月 二十一日字 高等學校 博物科 學員用으로 學部檢定을 받은 圖書이다. 총 55개 항목을 단편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3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 단원은 구체적인 제목을 실지 않고 두번째 단원은 岩石, 세번째 단원은 地質로 되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도는 총 36개가 수록되어 있다. 각 항목의 주제에 英語로 名稱을 併記하고 있다.

<化學>

改訂 新撰理化學 全

朴晶東 著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卍字紋이며 4침안이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다. 卷首는 表題面, 例言 1p. 目次 8p.

로 되어 있고 本文은 64p., 卷末은 正誤表와 版權面으로 이루어져 있다.

本書는 隆熙 四年 一月 三十日자로 私立學校 初等教育理科 學徒用으로 學部檢定을 받았고 二月 二十五日에 内部出版許可을 받았다.

著者는 例言에서

- 一. 本書의 目的은 小學校에 敎課하기 爲하야 編輯함이라.
- 一. 理化學 解説 下에 簡明한 圖를 挿하야 讀者의 理解함을 便易케 함이라.
- 一. 理化學 用語와 物質의 名詞는 近時代 漢譯의 最着한 者로 採術함이라.
- 一. 本書는 理化學諸家의 學說 中 最簡易함을 採하야 十五章으로 編하야 學徒로 하야곰 二箇年에 畢讀함이라.

와 같이 目的과 體裁를 설명하고 있다. 本書는 總 十五章 八十課로 이루어졌고 삽도는 總 74圖가 수록되어 있다.

〈算術〉

中等算學 上.下

李元祚 編.

本書는 梨花女大와 延世大에 소장되어 있으며 內題는 「算術敎科書」로 되어 있다. 크기는 23×15.5cm이고 洋紙洋裝本이다. 장정은 현대의 교과서 형태로 책장을 왼쪽으로 넘길 수 있게 되었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다. 上卷의 卷首는 隆熙元年(1907) 十月 一日의 金元濟의 純漢文序와 編者의 純漢文序 1頁, 目錄 2頁, 本文은 161頁, 卷末은 算術敎科書 答案 24頁와 版權面으로 이루어져 있다. 下卷의 卷首는 目錄 2頁, 本文은 278頁이고 卷末은 算術答案 20頁와 版權面으로 되어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元年 十月 一日)을 받은 尋常中學校 數學敎科書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上卷은 總 3編으로 下卷은 4編에서 9編으로 되어 있다.

第 1編 緒論

第 2編 諸等數

- 第 3編 整數
- 第 4編 分數
- 第 5編 小數
- 第 6編 循環小數
- 第 7編 編此及此例
- 第 8編 步合及理息等
- 第 9篇 開平法

으로 이루어져 있다.

問題와 例題가 있는데 그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第 四十三 例題

(1) 金 6丹을 得흔에는 4人으로서 15日間 働 흔을 要한다 然즉 5人으로서 11丹을 得흔은 幾日間 働乎(下卷 p.199)

答 22日

算術教科書 上,下

李敎承 編, 京城:文華堂, 隆熙 二年(1908) 七月, 上, 下. 1圖

本書는 韓結 金윤경 문고에서 1973년 4월 23일에 延世大에 기증한 것으로 크기는 21.5×15cm이고 洋紙洋裝本이다. 현대식 교과서처럼 橫서로 쓰여져 있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다. 上, 下. 卷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上卷의 卷首는 表題面, 凡例 2p., 目次 3p.이고 本文은 134p., 卷末은 例題答 21p., 語彙 5p.로 이루어져 있다. 下卷의 卷首는 表題面, 目次 3p.로 이루어져 있고 本文은 154p.이다. 本문의 各編中の 例題와 編末에 雜題를 싣고 卷末에 例題答을 싣었다. 例題答은 17p., 漢字와 英語를 적은 語彙는 6p.와 版權面으로 이루어져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三年 一月 二十八日)을 받은 私立學校 高等教育 數學科學員用 圖書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凡例에 의하면 敎科에 사용하는 算術書 여러 種을 引用하여 편찬한 책이라고 하였다. 目錄은 다음과 같다.

- 上卷 第 1編 總論
 第 2編 整數之組立及計算
 第 3編 四基法之定理及計算
 第 4編 整數之性質
 第 5編 分數
 第 6編 小數
 第 7編 循環小數
 下卷 第 8編 諸等數
 第 9編 此及此例
 第 10編 百分算及利息算
 第 11編 開方法
 第 12編 級數
 第 13編 求積法

本文의 각 編中에 例題와 編末에 雜題를 실어 학생들의 연구력을 強長하였다.

그 例를 몇가지 들면

上卷 例題六(p.16)

6에 5를 乘하라, 16에3, 29에 9를 乘하라.

雜題一(p.25)

五千五萬九百一을 數字로 記하라.

例題答 30, 48, 261

雜題答 50050901

語彙

量 Magnitude

命數法 Names of Number

下卷 例題七十二(p.151)

立方體가 有하라 各邊이 6尺이니 體積及表面積이 幾何.

雜題十(p.152)

6間을 隔 야 高1 1/2間及 2間の 兩柱를 立키고 其間에 壁을 築키면 壁面이 幾乎方間필고.

例題答 體積 216立方尺, 表面積 215平方尺

雜題答 10.5平方間

語彙

單名數 Simple Number

複名數 Compound Number

산술신편--, 산학신편, 고등산학신편 단

Dr. Eva H., Field 著, 신회영 譯, 대한성교서회(1차출판), 대한예수교서회(2차출판), 1902(1차출판), 1908(2차출판), 1910(3차출판).

신회영이 번역한 本書는 1차출판이 「산술신편」으로 번역되었고 2차출판은 「산학신편」, 3차출판은 「고등산학신편」으로 출판되었다. 「산학신편」의 內題는 「산학신편고등」으로 되어 있다.

「산술신편」과 「고등산학신편」은 延世大 소장본이고 「산학신편」은 延世大 와 梨花女大에 소장되어 있다. 「산술신편」은 2卷으로 되어 있으나 1卷이 소장되어 있다. 크기는 「산술신편」이 21.5×15cm, 「산학신편」 22×5cm, 「고등산학신편」 21.5×15cm이다. 장정은 「산술신편」은 洋紙洋裝本, 「산학신편」은 洋紙漢裝本, 「고등산학신편」은 洋紙漢裝本이다. 「산학신편」은 5침안, 「고등산학신편」은 왼쪽으로 4침안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橫서이다. 表紙의 능화는 「고등산학신편」이 卍字紋이며 「산학신편」은 능화가 없다. 文體는 모두 純國文體이다.

「산술신편」의 卷首는 表題面, 서 1p., 目錄 9p.로 이루어져 있다. 本文은 221p., 卷末은 答과 함께 張次매김을 本文과 같이 하여 총 248p.이다. 「산학신편」의 卷首는 表題面, 서 1p., 目錄 2p.로 이루어져 있다. 本文은 403p., 卷末은 答과 함께 張次매김을 本文과 같이 하여 총 440p.이다. 「고등산학신편」의 卷首

는 表題面, 서 1p., 目錄 7p.로 이루어져 있다. 本文은 315p., 卷末의 산학어록이 答과 같이 張次매김되어 총 360p.로 이루어져 있다.

本書 序文에 의하면 小學校나 中學校 生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일반에게도 算術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韓國의 行편이나 叢속에 合당하도록 改編된 점이 많다고 하였다.

術語는 괄호 안에 따로 漢字와 英語를 적어 놓았으며 漢字는 최소한도로 사용되어 있다. 「산학신편」과 「고등산학신편」은 부록에서 본문에서 다루어진 術語를 가나다 순으로 한글, 한문, 영어頁 순으로 Index했다.

예) 가법 加法 Addition 6

本書의 敘述方法에 관한 근거로 아래에 문제 몇가지를 인용하기로 한다.

p.55 양력의 5월 16시 25분 30초를 모도 초수로 화하면 몇 초나 되겠뇨
答 491130초

p.289 등비급수의 큰 항은 101요 등비는 3이니 제8항을 구하라.
答 2187

〈國語〉

新纂初等小學 四

玄采 著, 京城:玄采, 隆熙 三年(1909) 九月 二十三日, 壹 貳 參 各 十五錢, 四 五 六 各 二十錢.

원래 6冊 1秩로 된 本書는 四券만이 梨花女大에 소장된 것으로 크기가 23×15.5 cm이며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卍字紋이며 4침안이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다. 卷首는 表題面과 目錄 2p.이고 本文은 86p., 卷末은 漢文表 2p.와 版權面으로 되어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三年 八月 二十八日)을 받은 것으로 私立學校 國語科初等教育學徒用 圖書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총 38課로 되어 있다.

本書의 특이한 점은 書眉에 新出漢字를 제시하고 卷末에는 다루어진 漢字일람표를 들고 있는데 총 393字이다. 體裁는 기타 國語 教科書와 大同小異하나 구두점을 원점으로 표시하였다. 綴字法이 정연하여 隆熙 三年代의 表記法을 검토하는데 좋은 資料가 될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삽도는 24圖가 수록되어 있다. 제1과 綿과 씨아와 문턱의 全文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材料

綿의 실은 衣服의 材料를 .싸고. 솜은. 퍼서 衣服 속에. 두는이다.

綿은 春에. 씨를. 심어 秋에 싸고.

그 송아리의 色은 雪과. 같으며 我國은 土地가. 조코 氣候가.

고른 고로. 매우 잘되는이다.

<地理>

新撰地文學

閱大植 編, 朴晶東 校, 北部:徽文館 隆熙 三年(1909)五月 三十日, 四十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1×15cm이고 洋紙洋裝本이다. 文體는 國漢文 혼용이다. 卷首는 表題面과 光武 11년(1907) 元泳義 純漢文序 2頁, 凡例 2頁와 目次 4頁로 되어있다. 本文은 120頁이고 卷末은 版權面으로 이루어져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을 받은 것으로 高等學校 地理學科學員用으로 사용되었다. 第五編 十五章 二十節로 된 本書의 編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第 1編 地球星學

第 2編 陸

第 3編 空氣

第 4編 海洋

第 5編 生物의 分布及傳播

본서는 中學科程度로 2年 敎科에 적용케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第 5編 生物編은 時日이 촉박하여 극히 간단하게 나열하였다.

人名, 地名 등에 語音을 분명히 하기 위해 英字를 표기하였고 地名에는 단선(-)을 그었다. 또 학술상의 數值(평균온도, 高山의 기후 등)가 명확치 못한 곳에는 "?"로 대신하였다. 삼도는 총 55圖가 수록되어 있으며 이중 41圖의 氣壓은 칼라인 채되어 있다.

초학디지

E.H.Miller 著, 대한예수교서회 간, 광무 10년(1906)

本書는 梨花女大와 延世大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26.5×18.5cm이고, 洋紙洋裝本이다. 文體는 純韓文이며 책의 중간횡으로 줄을 그어 위아래로 기록을 하였다. 卷首는 表題面, 英文 版權面과 저자서문, 헐벗서문이 있으며 目錄 3頁가 있다. 本文은 58頁로 되어 있다.

本書의 英文冊題는 ELEMENTARY GEOGRAPHY로 되어 있으며 총 11장으로 되어 있다.

총론

대한

일본국

청국

디구의 논흙

아시아

유로바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드렐니아와 태평양 모든 섬

와 같은 차례로 되어 있다. 장이 시작될 때 다음과 같은 칼라인쇄 地圖가 收錄되어 있다.

아시아 디도

유로바 디도

아프리카 디도

북아메리카 디도

남아메리카 디도

오시아니아 디도

동반 디도

서반 디도

이 圖는 本文의 장차매김에서 제외되어 있다.

著者は 序에서 本書 刊行의 目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가저심호는디방과국가세계를비교호건디그닐고금을말홀수업논지라엇지
안력과힘력으로능히다구경호리요이러함으로나라마다디지를돈돌고만국의디지를
회집호야만국디지를편집호야어려서부터턴하의너른강산을동니와갓치구경함으로
모음이넓고뜻이커서세계를혼집안갓치알거늘대한은이와갓흔척이만치못함으로미
양근심호는바이러니이를감히호권의만국디지를편집호야대한남녀로쇼로호야끔고
로보시고넓이아시기를바라오니문세에서투름과구어의잘되지못호것은용셔호고보
시오.

또 헐벗의서문에서도

...한국에국문쇼화디지가업숨을한탄호더니다홍이금년춘에우리나라녀학사회
에유명호필부인이이척을편집호야나에게보이고고람함을청호으로한번보미대한쇼
학사회를위호야대단히치하홀일이라...

하였다.

敍述體裁은한 주제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못논말로 敍述되어 있다. 그 예를 참고로 기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위와 거리

어나늘오정에히를향하고거러서서울흔손을들어그치면서편이오왼손을들어그치면동편이오압홀바라보면남편이오뒤를도라보면북편이오하늘을쳐다보면웃편이오싸흠나려다보면오리편이니이여섯편은다방위물그치논거시라.

또어나사롬의게길을그쳐주라면몬져그어니편인거슬그칠거시니라방위물그쳐주논듯척치요긴한거슨동서남북네편이오돌지논동북간과동남간과서북간과서남간이이라또흔어나사롬의게길을그칠썩에방위만그칠썩아니라상거도그쳐야할지니상거를그치려면리수의한정흔거슬그칠거시니이거슨일촌일촌에서시작하여십촌이면일척이라하고륙척이면일보라하고삼십륙십이면일리라하느니라. 그런즉방위논어나곳에서어나곳에편을그치논거시오거리논 멀고갓가온상거를그치논거시니라

못논말

(一) 수면이라하논거슨무어시뇨 (二)히가어나편에서쓰느뇨 (三) 히가어나편에서지느뇨 (四)오정에동편을엇더케알수잇느뇨 (五) 히질썩북편을엇더케알수잇느뇨

初等 萬國地理大要 全

安種和 著, 元泳義 閱, 北部: 徽文館, 隆熙 三年(1909) 二月 二十二日, 貳拾伍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cm이다. 洋紙漢裝本이며 4침안으로 되어 있다. 表紙는 卍字紋이며 國漢文혼용이다. 卷首는 表題面, 安種和의 純漢文序 2p., 目次 8p.이며 本文은 56p.이고 卷末은 版權面이 있다.

隆熙 三年 一月 二十九日字로 私立學校 初等教育 學員用 教材로 學部檢定을 받은 本書는 總 8章 49課로 되어 있다. 그 目次를 보면

- 第 一 章 地球運行
- 第 二 章 地面水陸
- 第 三 章 亞細亞洲
- 第 四 章 歐羅巴洲
- 第 五 章 北亞美利加洲
- 第 六 章 南亞美利加洲
- 第 七 章 阿非利加洲
- 第 八 章 澳大利亞洲

으로 各 章의 1課는 總論으로 시작된다. 內容은 56p.로 世界地理에 관한 설명을 포괄하였기 때문에 簡略하고 地圖나 插圖는 수록되어 있지 않다. 地名의 表記는 漢字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原地名을 익히기 어렵고 本書 以外의 教科書에서 채택하고 있는 原名 병기도 생략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 東蒲寨 (Cambodia)
- 馬刺甲 (Malacca)
- 檳榔嶼 (Penang 島)
- 德意志 (Germany)
- 丹麥 (Denmark)

와 같다. 참고로 本文의 一章 一課를 기록하면

地球自轉

地球가 空中에 浮 ㅎ아 每日에 一周 軸을 自轉이라 칭 ㅎ느니 自轉(卽 私轉)東半球의 面 이 日光을 向하야 晝가 되던 西半球의 面은 日光을 背ㅎ故로 夜가 되나니라. (pp. 2-3)

初等大韓地理 全

安種和 著, 京城:廣德書館, 隆熙 四年(1910) 三月 十五日, 二十五錢.

本書는 梨花女大와 延世大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22.5×1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表題面, 純漢文序 1頁와 目次 3頁이고 本文은 70頁, 卷末은 版權面과 大韓帝國全圖가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三年 十二月 一日)을 받은 私立學校 地理科 初等教育學 徒用 圖書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총 二十四課로 된 本書는 一課 地球로 시작하여 우리나라의 기후, 특산물, 언어, 의복, 가옥, 교육, 종교, 화폐 등으로 나열되고 있다. 삽도는 총 2圖이며, 별책부록으로 낱장의 칼라판 大韓帝國全圖 1장이 있다.

〈歷史〉

初等 大東歷史

朴晶東 著, 京城:同文社, 隆熙 三年(1909) 八月 十二日, 參拾錢.

本書는 延世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卍字紋이며 4침안이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다. 卷首는 表題面과 目錄으로 되어 있으며 목록은 5p.이다. 卷末은 版權面이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三年 六月 十日)을 받은 私立學校 歷史科 初等教育 學徒用 圖書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本文은 第四十一로 81p.이다. 敘述方法은 編年體로 사건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民族的 차원의 사건, 歷史上 偉人, 名將 등에 重點을 맞추고 있다.

目錄은 哀王의 南遷(第三), 高句麗와 수의 戰爭(第九), 高句麗와 唐의 戰爭(第十), 三別抄(第二十六), 梁憲洙의 戰勝(第三十九) 등으로 되어 있으며 王의 이야기는 建國始祖를 제외하고는 거의 배제하여 주로 對外抗爭, 名將, 偉人 등에 대해 단편적으로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는 帝國主義侵略에 대한 저항, 民族의 自主獨立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第三 哀王의 南遷 全文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哀王은名이準이니箕子의四十一歲孫이라支那漢國이使를遣호야 師를 請호거늘 步兵一萬을發호야漢軍으로더부러楚王項籍을垓下에進功호야大破호니라.

燕人衛滿이其國의亂을當호야其黨千餘人을率호고逃亡호야來降호거늘王이 寵愛호시니大夫單通이諫호되滿의恭儉이太過호니반다시奸險호人이라博士홍并호야西鄙호守케호얏더니滿이其黨과反호야形勢가急호지라王이金馬郡今益山에 播遷호시니라.

東洋史教科書 全

俞鈺兼 著, 京城:有名書鋪, 隆熙 二年(1908) 八月 二十七日, 七十五錢.

本書는 梨花女大와 延世大에 소장되어 있으며 延世大 소장본은 한결 김윤경 문고가 기증한 것이다. 크기는 22×15cm이고, 洋紙漢裝本이다. 表紙는 卍字紋이며 4침안이다. 文體는 國漢文혼용이다. 卷首는 例言 2p., 目錄 6p.로 되어 있고 卷末은 版瀆面이 있다. 梨花女大 소장본은 卷首와 本文 16p.가 낙장되어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三年 六月 二十七日)을 받은 私立學校 歷史科 高等教育學員用 圖書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總 5編 221p.로 된 本書의 주요 차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首編 緒論(東洋史의 意義, 範圍, 時期의 區分)

第 1編 上古史

第 2編 中古史

第 3編 近古史

第 4編 近世史

記事는 간단하며 중요한 諸民族의 盛衰와 各 邦國의 興亡사실을 기록하였으며 近世史를 중심으로 하였다. 教師로 하여금 教科書 中の 사실과 관련이 있는 逸話, 傳說과 典故 등을 이야기하여 학생의 흥미를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本國 사실은 외국과 연관있는 것만 기입하였다. 年代는 檀君紀元으로 했고 그 아래 西紀를 附記하여 國史와 西洋史를 연결하고자 했다. 地名, 人名은 현저한 것외에는 기록치 않았으며 古代 地名에 변천이 있는 것은 今世의 地名과 그 위치를 기록하였다. 서양 人名과 地名 등은 漢文과 國文으로 표기하였다. 年表는 附記되어 있지 않다. 書眉에 중심내용을 간단히 기록하였고 人名은 -(단줄)로 그어 놓았다.

西洋史教科書

兪鈺彙 著, 兪星濤 校, 京城:廣韓書林, 隆熙 四年(1910) 三月 三十日, 七十錢.

本書는 梨花女大와 延世大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22×15.5cm, 洋紙洋裝本으로 國漢文혼용이다. 卷首는 表題面, 例言 1p.와 目次 7p.로 되어 있다. 本文은 230p.이며 卷末에는 板權面과 正誤表가 기록되어 있다.

本書는 學部檢定(隆熙 三年 九月 十六日)을 받은 私立學校 歷史科 高等教育學員用 圖書로 사용하기 위하여 編纂된 것이다. 目次는 다음과 같다.

上古史

中古史

近古史

近世史

로 총 4編 71章 6節로 편성되었다.

本書의 내용은 歷史의 大概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地名, 人名은 英國 語音을 사용하되, 1930年 출판된 [大英百科全書]를 따랐다. 紀年은 東洋史教科書와 연결코자 西紀를 사용하였고 檀君紀元은 그 아래에 기록하였다. 書眉에 중요 사항들을 기록하였고 國名, 人名에 一, 二로 표시하였다.

初等本國略史 卷一. 二.

興士團編輯部 著, 京城:同文館, 隆熙 三年(1909)九月 三十日, 卷一 十七錢, 卷二 二十八錢.

本書는 韓 結 김윤경 문고가 1973년 4월 23일 延世大에 기증한 것으로 크기는 22×15.5cm이며 洋紙洋裝本이다. 從書이며 國漢文體로 쓰였다. 各 卷의 首는 表題面, 目次로 되어 있다. 卷末은 版權面이 기록되어 있다.

本書는 學部의 檢定(隆熙 三年 六月 二日)을 받은 私立學校 歷史科 初等教育學 徒用 圖書로 使用하기 위한 것이었다. 卷一은 二十三으로 나누어져 총 56p.이고 卷二는 三十二로 나누어져 총 100p.이다. 本文의 韓字는 일일이 國문으로 토를 달아 놓았다.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元年秋七月(원년추칠월)에 太祖高皇帝(태조고황제)게오서 우리 大韓帝國萬世(대한제국만세)의...(卷二, 1p.)

本書는 사건중심, 偉人, 名將中心으로 서술하고 있다. 本文에 偉人 名將에 대한 설명과 함께 人物圖나 그 설명에 적합한 그림을 그려 수록하였다. 各 卷에 수록된 삽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卷一 箕子

朴赫居世와 后

百濟始祖

金闕智

乙支文德이 隋兵을 大破하는 장면

金庾信

高麗太祖의 創業

姜邯贊의 大捷

尹瓘의 功業

卷二 太祖高皇帝의 創業

金宗瑞의 北方開拓

壬辰의 亂 2장(거북선, 전쟁장면)

丁若鏞의 不遇

丙寅의 亂

한편 삼도 설명에 대한 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五 金宗瑞의 北方開拓 (p.12)

金宗瑞(김종서)는 世宗(세종)씨 大臣(대신)이라. 世宗十九年(세종십구년)에 威吉道(함길도:今威鏡, 南北道) 都節制使(도절제사)가 되었더니 이 씨에 曠地(디경:豆滿江沿邊) 荒蕪(황무) 한 사이에 사는 사람이 稀少(희소)하여 盜賊(도적)이 자조 出入(출입)하는지라. 宗瑞(종서)가 그 形便(형편)을 上계 알외야 會寧鍾城(회녕중성) 등 여섯 鎭營(진영)을 罷(배)풀고 南方(남방)의 百姓(백성) 五百人(오백인)을 移(이)기였더니 그 氣候(기후)의 심히 寒(한)으로 견대지 못하거날 다시 三千餘人(삼천여인)을 移(이)기매 사람의 기운이 旺盛(왕성)함으로써 寒氣(한기)가 전보다 減(감)하는지라. 이에 農事(농사)짓기를 勸(권)하며 六畜(육축)기르기를 힘쓰게 하니 이로조차 土品(토품)이 기름지고 物件(물건)이 豐足(풍족)매 사는 百姓(백성)이 漸漸繁盛(점점번성)하야다. 雄壯(웅장)한 고을을 일우니 曠地(디경) 千餘里(천여리)를 開拓(개척)함은 金宗瑞(김종서)가 그 힘을 다한 功(공)이라. 그 前(전)에 君(?)臣(군신)이 다 金宗瑞(김종서)의 北方經營(북방경영)을 反對(반대)하야 같오대 百姓(백성)의 힘을 疲困(피곤)케 하며 나라의 財物(재물)을 虛費(허비)하고 邊方(변방)오랑캐에게 怨望(원망)을 맺게 함이

可(가)치안타호대 上(상)이 金宗瑞(김종서)를 집히 아시는 故(고)로 의심치 아니 하시고 오로지 막기시니 宗瑞(종서)의 功(공)이 實狀(실상)은 世宗(세종)이 聖明(성명) 하시심에 말매암이러라.

新撰 初等歷史 卷一. 二. 三.

柳瑾 著, 張志淵 校, 京城:廣德書館, 隆熙 四年(1910) 四月 五日, 卷一 十六錢, 卷二 十六錢, 卷三 十八錢.

本書는 梨花女大 소장본으로 크기는 22×15cm이고 洋紙洋裝本이다. 從書이며 國漢文體로 쓰였다. 卷首는 表題面, 本國歷史圖와 目錄으로 되어 있다. 表題面은 장식변란으로 戒선이 있으며 校, 著, 發行事項이 기록되어 있다. 目錄은 2頁의 總目으로 되어 있다. 卷末은 各 卷에 版權面이 있다.

卷一은 93課로 65p., 卷二는 89課로 62p., 卷三은 84課로 63p.이다. 學部檢定(隆熙 四年 二月 二十八日)을 받은 本書는 私立學校 初等歷史科 學徒用 圖書로 사용하기 위해 畧술된 것이다. 卷一은 檀君朝鮮紀부터 三國紀, 卷二는 新羅紀부터 李朝紀, 卷三은 李朝紀의 歷史를 적은것으로 주로 史話 중심의 敘述로 始終하고 있다. 참고로 卷一 檀君朝鮮紀의 第 1課와 第 2課 全文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朝鮮은國이東方에잇스니츠음에君長이無 하야人民이草衣를입고木實을먹으며夏에는巢에 居 하고冬에는穴에處 하더라.(第 一課)

隆熙元年前四千二百十年에神聖 하 신사람이太白檀木아 띠에誕生 하 신디國人이늬히여君을삼으니곳檀君이시니라.(第 二課)

IV. 結 言

이상에서 초기 기독교의 4학교의 歷史, 敎科課程, 敎科書를 살펴 보았다.

대개 초기에는 敎科書라고 이름 붙일만한 것이 없었고, 英語와 聖經이 주로였으며, 미국 敎科書를 교사가 번역하여 펜으로 적은 것을 교사만 가지고 사용한 경우도 있어, 1900년 이전의 敎科書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한 교사가 이 학교, 저 학교에서 강의하였기 때문에 공통과목이 많았다.

초기에는 성경책과 영어책이 특별히 따로 없었고, 英語로 된 聖經책으로 가르쳤으며, 점차 역사, 지리 등을 가르쳤다. 한글을 가르쳐서 주체성을 심어 주었고 國史교육을 통해서 愛國心を 길러주었다.

貞信의 경우는 生物시간에 濟衆院에 가서 人體, 生理, 化學, 物理 등을 배우게 하여 科學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였다. 실업교육을 실시하여 培材의 경우 活版所를 설치하여 어려운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일을 하게 하여 공부도 하고 돈도 벌게 하였으며, 徹新의 경우는 木材와 裁材마구니 제작 등의 교육을 강조하였고, 梨花는 洋裁과목 시간에 작품을 만들어 팔게 하기도 하였다.

기독교계의 近代學校 설립은 韓國社會를 近代的인 社會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기독교 정신의 교육은 韓國社會를 民主社會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A Bibliographical Research on Textbooks of Missionary Schools in Korea during the Opening Period

Abstract

Bong-Hee Kim

The opening period of Korea was the period of modernisation amidst the conflicts between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sections with penetration of Western powers after 1876. With the opening modernisation accompanied modernisation of education. Missionary schools established by protestant missionaries played a crucial role in educational modernisation in the period of opening.

In this article, the process of educational modernisation and the ways in which the ideas of democracy and equality were taught in the earliest schools, Paejae, Ewha, Kyoungsin and Chungsin are analysed through the method of bibliographical investigation of the textbooks used by these schools.

No textbook prior to 1900 was found and in general there were no textbooks such as we know today. Usually English reading material and the Bible were the main teaching materials. Teachers kept their own copies of hand-written texts which were translated versions of American textbook. Since the same teacher taught in a number of schools, they shared same curriculum.

In the early period, English Bible was taught so that English and the Bible lessons were not separated but gradually history and geography were added.

Teaching of Hangul, and Korean history were added to encourage the sense of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In the case of Chungsin, for biology class, pupils were sent to Che-jung-won to learn human physiology, chemistry and physics, which shows an emphasis on science education.

Vocational education was carried out; in the case of Paejae, a printing workshop was set up enabling students to earn some money at the same time as learning. Also in Kyungsin, skills of woodwork and basket weaving were stressed. Ewha also held a bazaar of the work made in sewing classes.

Establishment of missionary schools brought about a great contribution in modernising Korean society and the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of these schools lay the foundation for building democracy in Korea.